

# “정부, 광주 미래 위해 현안사업 협조를”

시의회, 세계수영선수권·車 100만대·면세점 신설 촉구

“전공노 빌미 비협조는 새로운 차별이자 보복행정”

행자부는 광주시에 20일까지 노조 사무실 회수 등 압박

광주시 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에 따른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들 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광주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적절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두고 행정자치부는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조직감사를 벌이는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공노 문제를 빌미로 광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비협조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차별이자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내 면세점 광주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시 노조에 대한 압력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미진할 때는 범정부 차원의 조치도 천명한 상태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시 노조의 전공노 전환 총투표 관련 후속조치’ 공문을 보내 20일까지 노조사무실 회수(폐쇄) 등의 조치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까지 제재조

치를 완료하도록 광주시에 통보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날 공문에서 “사무실 회수, 노조 명의의 계산 및 홍보물 철거, 행정 포탈 아이디 회수, 비협조단체 활동 목적의 청사시설 이용제한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노조가 사무실 회수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행정 대집행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행자부는 이어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업무 및 시설관리권자에 대해 엄정 문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까지 경고했다.

행자부가 법(사)정부 차원의 조치를 언급함에 따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2019세계수영대회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최원일기자 cki@kw



교황 도착에 환호하는 시민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일(현지시간) 주례 일반 알현을 위해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 감사위, ‘말 많은’ 태양광발전사업자 선정 전면 감사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추궁 놓고

임택 시의원-윤장현 시장 설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윤장현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을 전면 감사하기로 했다. 시의회도 행정 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기세여서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임택(더민주·동구 1) 의원은 11일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LG CNS컨소시엄) 지위 박탈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시는 감사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지위를 박탈했지만, 감사위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위 박탈 결정은 허위 사실, 허위 공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명과 함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배제해야한다’는 다수의견이 개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방점 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하겠다”며 “다만, 관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6월에 나온다고 하니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사무 조사권을 발동해 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업무 담당자에서 과장, 국장, 시장까지 보고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감사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임 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일촉즉발의 설전도 벌였다. 윤 시장은 환경생태국장, 감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임 의원의 추궁에 “공직자들을 피의자 다루듯 하지 말”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임 의원은 “주무국장이 인사조치됐고, 과장이 항명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진행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추궁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목과할 수 없다”며 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회 후 윤 시장은 “광주시장으로서 부끄러운, 명예롭지 못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결정을 전제로 질문한다는 느낌을 받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사과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주목! 20대 국회 광주·전남 새얼굴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 “빈사 상태 광양항 활성화 앞장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 만들것”

국민의당 정인화 당선인(59·광양·곡성·구례)은 20대 총선 승리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정치권에 서는 신인에 가까운 경력으로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3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꺾었기 때문이다. 정당선인은 광양 출신으로 광주공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5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뛰어든다. 광양·여수부시장, 장흥부군수,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등을 지내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선 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다.  
▲광양·구례·곡성 등 곳곳에 당선 인사를 다니고 당 내의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등원 준비를 하며 보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3개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여서 고향인 광양 외에도 곡성, 구례 발전에 신경을 써야 할텐데.  
▲곡성·구례군민이 광양 생각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1지망은 농해수위, 2지망은 국토위, 3지망은 산업위를 선택했다. 무엇보다 농해수위를 강력히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약에도 포함된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가칭)을 만들겠다.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공약 중 하나다. 올인 가맹점주들은 힘이 약하다. 제도적으로 을을 보호하지 않으면 수많은 가맹점주

지역 정치권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 기존 투포트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광양항은 천혜의 항만이다. 광양항을 살려야 인근 구례·곡성 뿐 아니라 순천·여수까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녹색돌풍’ 즉 국민의당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그 요체는 뭐라고 생각하냐.  
▲호남인들이 자긍심 훼손에 따른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호남정치를 복원해서 정권교체를 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무시당한 분노가 녹색돌풍으로 이어졌다. 호남인의 자긍심이 손상된 것에 대한 반발이 에너지로 폭발한 것이다.

-3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은.  
▲3당 체제라 어느 당도 독주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우리 당이 주도권을 잡고 두 당을 끌고 갈 수도 있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위한 정당, 국민의 편에 서는 정당,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정권 창출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호남정치 복원’이란 화두가 오르내리는데, 바람직한 호남정치의 방향은.  
▲호남인이 정권교체의 주체가 돼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이기주어나 지역감정의 발로가 아니다.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농해수위·국토위 활동 희망  
곡성·구례 발전에 힘 모을것  
호남인 정권교체 주체되어  
새로운 정권 탄생 역할해야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일은.  
▲광양항이 빈사상태다. 광양항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해수위를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 순천만랜드 사업지구 토지거래 묶인다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대

2021년 5월까지 허가구역

전남도는 11일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인 순천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을 12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순천만랜드 조성 예정 지역은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

정원과 인접한 곳이다.

순천시가 브랜드까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지로서 힐링과 생태환경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유원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외부 자본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비: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대표전화 (062)236-52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